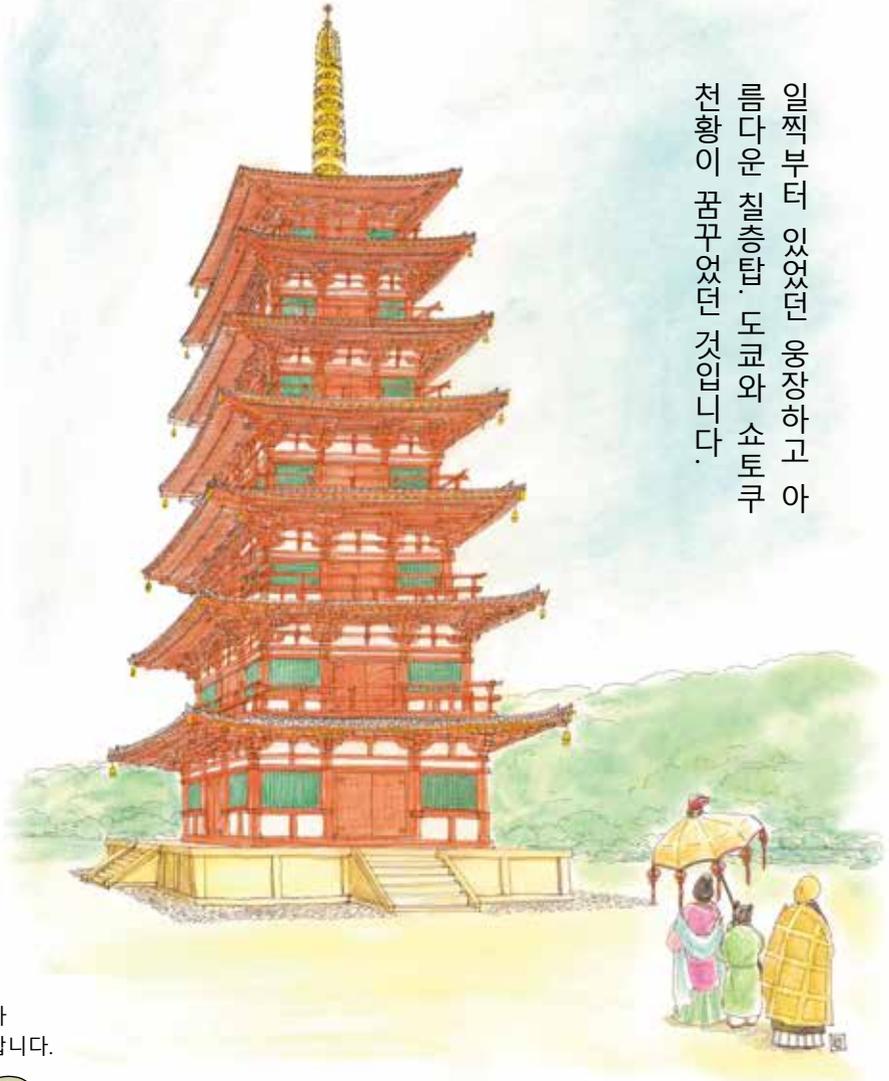


# 유게데라 절 탑의 이야기

~도쿄(道鏡)와 쇼토쿠 천황의 발자취 10년~

일찍부터 있었던 웅장하고 아름다운 칠층탑. 도쿄와 쇼토쿠 천황이 꿈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합니다.



야오시 관광·문화재과

현재의 오사카부 야오시 출신인 도쿄와 그가 지원했던 쇼토쿠 천황이 걸어온 10년 동안의 역사와 2017년에 나라 시대의 대규모 탐 터가 발견된 '유게데라 절터'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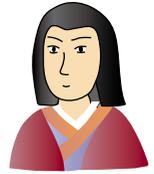
## 이야기의 주인공

**유게노 도쿄**  
(?~772년)

야오에 본거지를 가진 유게 가문 출신으로 출생연도가 명확하지 않다. 가쓰라기산과 도다이지 절에서 엄격한 수행을 거듭하여 불교에 관해 해박한 학식을 지닌 승려.



도쿄



쇼토쿠 천황

4  
쪽  
에  
계  
보  
있  
음

**쇼토쿠 천황**  
(718~770년)

도다이지 절을 건립한 쇼무 천황이 아버지이며 고묘 황후가 어머니이다. 역사상 6번째 여성 천황이며 '고켄 천황'으로 즉위했다. 이후 준닌 천황에게 양위하고 상황(上皇)이 되었다가 764년에 재차 쇼토쿠 천황으로 즉위했다. 야오에는 세 번 내방하였다.

수막새



암막새

### 마루짱·히라짱

이 이야기의 내비게이터 유게데라 절터의 수막새와 암막새를 말하는 것으로 말투도 다른 것 같은데...



### 우도 기요

이 이야기의 내비게이터 유게데라 절과 도쿄에 대해 가르쳐 줄 친절한 사람인데...

## 유게데라 절터 위치



오사카부

야오시



국가지정 사적 유게데라 절터



유기 신사

오사카베 초등학교

다마쿠시가와 강

아케가와미나미 중학교

아케가와 초등학교

온지역

벤자이텐즈카 층

나가세가와 강

미야코즈카 층

쓰루미시마신사

유게 신사 (하기시유게)

국가지정 사적 유게데라 절터

유게 신사 (유게초)

시키역

아케가와히가시 초등학교

온치가와 강

# 유게데라 절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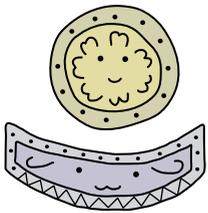
유게데라 절은 도쿄 고향인 유게의 땅에 쇼토쿠 천황이 건립을 추진했다고 "속일본기"에 기록이 있으나 건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오랫동안 수수께끼의 절이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2016년 9월 발굴조사(야오시 히가시유게 3초메)로 나라 시대의 기와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2017년 2월에는 거대한 탑의 기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3일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발견된 탑기단

## 프로로그



이봐~  
 뜬금없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뭐냐 말아야~  
 정신 차리고 보니  
 까 이런 곳에 꽃혀  
 있고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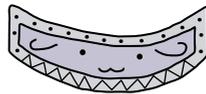
너희들은 도쿄와 쇼토쿠 천황이 세운 절에서 2017년 2월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유게데라 절터의 기와잖아?

발굴 현장에 떨어져 있었지..



이런 곳

이봐~



도쿄? 유게데라 절? 기와? 우리에 대해서 알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도쿄와 쇼토쿠 천황 두 사람의 발자취와 유게데라 절과의 관계를 살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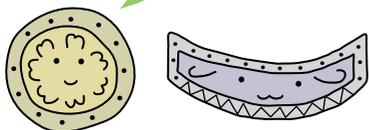
너희들 이름은... 수막새와 암막새 모양의 기와니까 '마루짱' '히라짱'이라고 이름을 지을게.



# (1) 만남의 땅·호라노미야 궁

761년  
(덴표호지 5년)

애초에 둘이 만나게 된 계기가?



헤이조쿄 궁의 북쪽에 있었던 오미국의 호라노미야 궁(시가현 오쓰시)이란 곳에서 고켄 상황(후의 쇼토쿠 천황)의 병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된 거지.



옛날에는 기도를 드려 병을 치료했다.

도쿄는 고켄 상황이 준 천황과 함께 찾은 호라노미야 궁(현재의 시가현 오쓰시)에서 의료와 불교 지식이 있는 간병 선사로 상황의 병을 치료한 후 신임을 얻었습니다.

## 나라 시대의 수도

나라 시대(710~794년)의 수도로 잘 알려진 곳은 헤이조쿄 궁(나라시)인데 쇼무 천황은 구니쿄 궁(교토부 기즈가와시)이나 시가라키노미야 궁(시가현 고카시), 나니와쿄 궁(오사카시)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호라노미야 궁은 헤이조쿄 궁의 부수도로 둔 '훗쿄 궁'으로 불리나 상세한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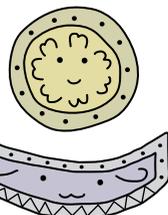


나라 시대의 궁도 위치

부수도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 또 뒤에 나오는 '유게노미야 궁'이나 '니시노쿄 궁'도 부수도와 같은 것이야.

※ '사이쿄 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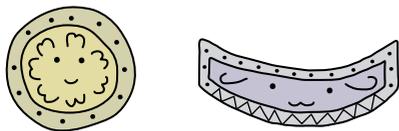
쇼토쿠 천황도 아버지인 쇼무 천황의 궁 조성법을 본받았는지도 모르죠.



# (2) 천황 다시 즉위하다

764년  
(덴표호지 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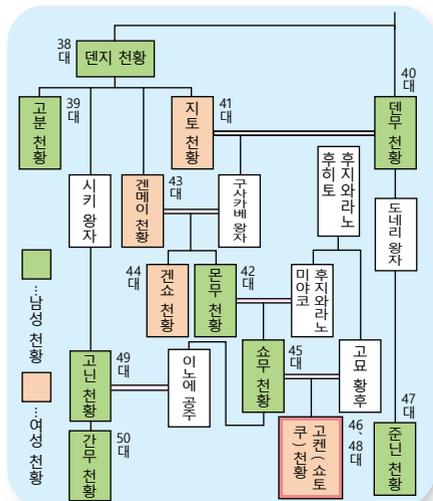
즉위하여 어떤 정치를 한 거지?



도쿄의 영향으로 762년에 출가한 고켄 상황이었지만 준닌 천황과의 다툼과 764년에 있었던 후지와라노 나카마로 난이 있고 난 뒤 상황은 다시 즉위하여 쇼토쿠 천황이 됩니다.

그리고 도쿄와 함께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상징으로 도다이지 절에 대한 사찰로 사이다이지 절을 건립하고 그 여승사로 사이리유지 절을 건립하였습니다.

아버지인 쇼무 천황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사이다이지 절과 사이리유지 절을 짓거나 백만탑을 배포하기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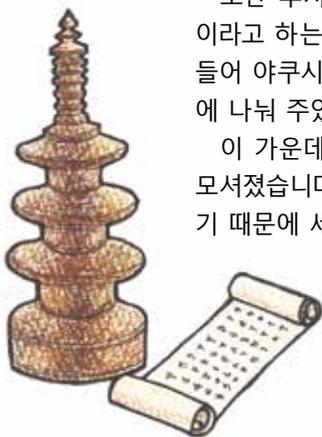


쇼토쿠 천황에 관한 계보

## 백만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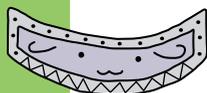
또한 후지와라노 나카마로 난으로 죽은 사람을 공양하기 위해 '백만탑'이라고 하는 20 cm 크기의 목제로 된 삼층탑을 6년에 걸쳐 100만 개를 만들어 야쿠시지 절, 고후쿠지 절, 호류지 절, 시텐노지 절 등 10개의 큰 절에 나눠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백만탑 다라니'라 불리는 진호 국가를 기원하는 불경이 모셔졌습니다. 이 불경은 동판이나 목판으로 인쇄되었는데 연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만탑·백만탑 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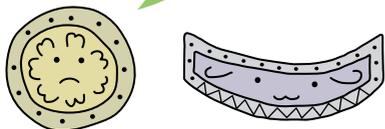
백만 개나요! 대단하네요!  
쇼토쿠 천황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도쿄에게도 의지했군요.



# (3) 천황이 유계에 찾아왔다

765년  
(덴표진고 1년) 10월

천황이 찾아왔더니 대단한 일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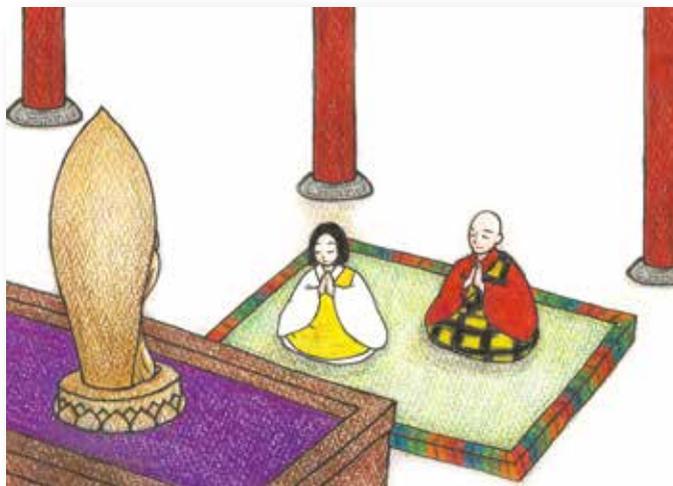


그렇고말고. 쇼토쿠 천황을 맞이하기 위해 유계를 행궁(임시 궁궐)이나 절을 정비했나 봐.



도쿄는 기이국으로부터 행차 도중에 들리는 쇼토쿠 천황을 위해 후일의 니시노쿄 궁을 건설의 시초가 되는 궁과 절을 정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유계를 찾아온 천황은 유계데라(弓削寺) 절에서 부처님을 숭배하느라 5 일 동안 지냈습니다. 유계데라 절은 유계 가문의 우지데라로 유계데라(由義寺) 전신이 되는 절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쿄는 승려였으나 최고의 관직인 태정대신 선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도쿄는 고향에 금의환향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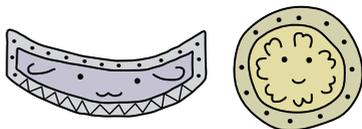


도쿄뿐만 아니라 유계 가문 일족도 출세했고 도쿄의 동생인 유계 기요히토는 다이아곤의 직위를 받아 종2품이 되었다.



유계데라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쇼토쿠 천황과 도쿄(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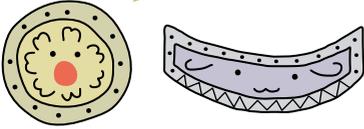
도쿄 선사도 천황을 맞이할 만한 지위가 되어 자랑스러웠겠지요~



# (4) 도교 법왕이 되다

766년  
(덴표진고 2년) 10월

도교 선사는 계속해서 출세했다지요!?



불교 중심의 정치를 진행하기 위해 풍부한 불교 지식을 가진 도교를 법왕으로 임명하여 쇼토쿠 천황을 보필했다.



도교는 승려로는 최고의 지위라 할 수 있는 법왕이 되었습니다. 법왕이 된 인물은 오직 도교뿐입니다. 쇼토쿠 천황은 도교의 지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계 행궁이나 헤이조교 궁에서 관리들에게 천황과 똑같은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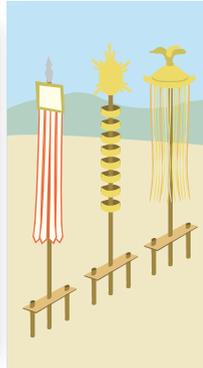
## 도교의 스피드 출세



## 헤이조교 궁의 당기 터

2014년에 거행된 헤이조교 서궁의 발굴 조사로 의식을 거행할 때 세워졌던 '보당(寶幢)'과 '사신기'의 주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주혈은 765년 쇼토쿠 천황의 정월 초하루 때 의식 또는 769년에 도교가 대신들의 인사를 받았을 때의 유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깃발을 앞에 두고 법왕이 된 도교가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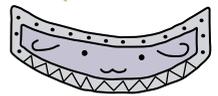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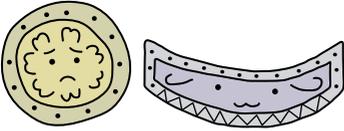


사진 제공: 나라문화재 연구소

# (5) 우사하치만구 신사 신탁 사건

769년  
(진고케이운 3년)  
5월~10월

'사건'이라니 불온하  
군~어떤 내용이야?



도쿄를 천황으로 받들면 천하태평이 된  
다고 하는 우사하치만구 신사에서 신의  
계시가 있었지. 하지만 황족 이외의 자를  
천황으로 모신다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  
이었기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와케노  
기요마로라는 자를 새로 파견하게 되었  
는데...



우사하치만구 신사로 간 와케노 기요마로는 도쿄의 즉위에 반대하는 계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결국 처음 계시대로 도쿄가 천황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쿄 스스로가 황위를 원했는지, 쇼토쿠 천황이 도쿄를 천황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또는 누군가가 계획했는지 등 여러모로 수수께끼가 많으나 사건의 진상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 우사하치만구 신사 와 와케노 기요마로

오이타현 우사시에 있는 우사하치만구 신사는 예로부터 신앙이 두터운 까닭에 그 계시를 중시했습니다. 와케노 기요마로는 이 사건 이후로 오스미국 (현재의 가고시마현) 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 후 고닌 천황의 시대에 복귀되자 구 야마토가와 강의 치수 대책을 계획하는 등 가와치 지역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 야오시와 우사시, 와케노 기요마로 출신지인 오카야마현 와케초가 각각 국내 교류 도시가 되었지.

사건은 큰일이었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현대에는 사이가 좋아진 건 다행한 일이지.



신탁 사건의 무대가 된 우사하치만구 신사(오이타현 우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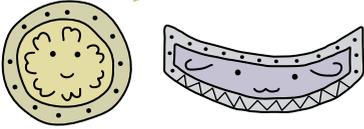


# (6) 유게노미야 궁이 수도가 되다

769년  
(신고케이운 3년)  
10~11월



야오가 '수도'가 되었다!? 자세히  
가르쳐 줘~!



조금 전에도 약간 설명한  
'부수도'를 말하는 거야.  
헤이조쿄 궁에서 서쪽 궁궐  
이라 해서 '니시노쿄 궁'으  
로 정해진 거지.

신탁 사건 후 쇼토쿠 천황의 두 번째 행차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23일간 체재하여 지금까지 '유게노미야 궁 (弓削宮)' 으로 부르던 것을 길조를 나타내는 한자인 '유게노미야 궁 (由義宮)' 으로 바꾸고 또 유게노미야 궁을 '니시노쿄 궁' 으로 하라는 조칙도 내렸습니다.

니시노쿄 궁은 유게데라 절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야오시 남부에서 가시와라시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와치국' 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한 행정 지역으로서 '가와치 직' 이 되었습니다.

천황은 류게지 절 근처의 강가에서 '장' 을 열게 하고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니시노쿄 궁 이 수도에 필요한 '궁궐', '절', '장' 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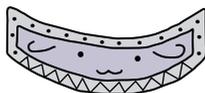
## 류게지 절터의 석비

류게지 절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나가세가와 강가에 있었을 거로 추정되며 절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야오 시립 야스나카 초등학교의 남서쪽 모퉁이에는 석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야스나카 초등학교에 있는 석비

지금은 쓸쓸히 석  
비가 서 있을 뿐이  
지만 당시에는 번  
창했을 거예요~



# (7) 마지막 행차

770년

(신고케이운 4년) 2~3월

뭐? 마지막 행차...  
니시노코 궁은 완성되었나요?



유게노미야 궁이나 유게데라 절 공사가 진행되며 수도의 상징이 되는 탑이 완성됐다는데...



쇼토쿠 천황의 세 번째 행차는 770년 2월 ~3월에 걸쳐 39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 니시노코 궁을 칭송하는 우타가키(집단으로 노래하는 악극 행사)가 거행되고 유게데라 절의 탑 건설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등 건설이 추진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유기(由義) 신사와 두 개의 유계(弓削) 신사

야오시 야오기키타 5초메에 있는 유기 신사 경내에는 유게노미야(由義宮) 궁터의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사 장소는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유게노미야 궁의 북단쪽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야오 시내에는 시키나이샤의 유계 신사가 구 와카에군 히가시유게무라(히가시유계 1초메)와 구 시키군 유게무라(유계초 1초메)에 있습니다



유기 신사의 유게노미야(由義宮) 궁터 석비

## 니시노코 궁을 칭송하는 우타가키

‘우타가키’는 강가나 장터에서 남녀가 모여 교대로 노래하는 악극 행사였는데 이 시기에는 궁중 의례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니시노코 궁에서도 6대 가문인 후지이 가문, 후네 가문, 쓰 가문, 후미 가문, 다케후 가문, 구라 가문 등 도래계 씨족의 남녀 230여 명이 참가한 ‘우타가키’가 열렸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의 노래는 니시노코 궁을 칭송하는 것으로 쇼무 천황이 헤이조쿄 궁의 정문인 주작문 앞에서 우타가키를 거행한 적도 있어 마찬가지로 ‘유게노미야 궁’에서 거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한 남녀가 현재 하비키노시와 후지이데라시의 남부 가와치를 본거지로 한 씨족이라는 점에서 하카타강 이름에 가까운 ‘하쿠타’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이시카와(야마토가와 강 지류) 강가 부근에서 열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계노미야 궁에서 열린 우타가키 이미지(하야카와 가즈코 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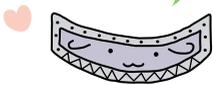
시냇물도 여울도 아주 투명해  
 맑고 상쾌한 하카타강이  
 언제까지나 청류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湖も瀬も 清く流れし 博多川  
 千歳を待ちて 澄める川かも

영원히 번영하는 도읍지라  
 궁이  
 이 니시노쿄 궁의 유계노미야  
 발을 동동 구르며 노래한다  
 처녀들에게 남자가 바삭 다가서

少女らに 男立ち添ひ 踏みならす  
 西の都は 万世の宮

우타가키라~여  
 러 가지 사랑이  
 생겼겠죠~



그렇구나~안타깝군~  
 완성된 니시노쿄 궁을  
 쇼토쿠 천황도  
 보기를 바랐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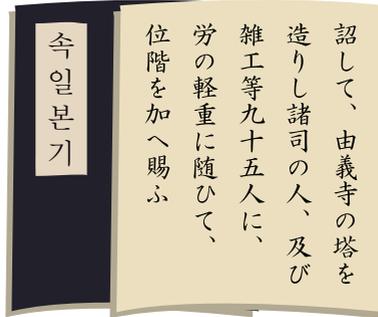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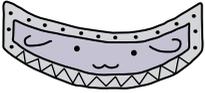


건강이 나빠진 천황은 탑의 완성을 본 다음 날 헤이조  
 교 궁으로 돌아간 후로 다섯 달 뒤인 8월에 죽고 맙니다.  
 이 세 번째 행차가 마지막으로 야오 땅을 찾는 일은 두번  
 다시 없었습니다. 니시노쿄 궁의 건설은 천황이 죽고 나자  
 중지되어 10 개월 남짓의 짧은 수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 (8) 두 사람이 본 유게데라 절의 탑

770년  
(신고케이운 4년)  
4월

오른쪽 문장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속일본기"에 나오는 유게데라 절의 탑 건설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 기록된 부분이지.



속일본기의 이 기록은 쇼토쿠 천황의 세 번째 행차 때 것으로 '유게데라 절'에 관한 정보는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곧이어 쇼토쿠 천황이 죽기 때문에 탑이 있었다고 해도 대규모 탑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발굴 조사에서 거대한 탑의 기단이 발견되어 신비한 탑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붕을 장식한 탑

출토된 기와를 보면 도다이지 절이나 고후쿠지 절 등 나라 시대 후반에 국가가 건설한 사원의 기와가 약 80%를 차지하는 점에서 국가가 건립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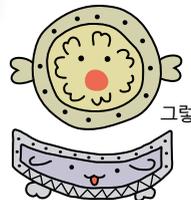
도다이지 절 방식(왼쪽)과 고후쿠지 절 방식(오른쪽)의 수막새와 암막새

## 탑의 상륜

탑 꼭대기를 장식한 쇠불이일 가능성이 있는 청동 제품이 발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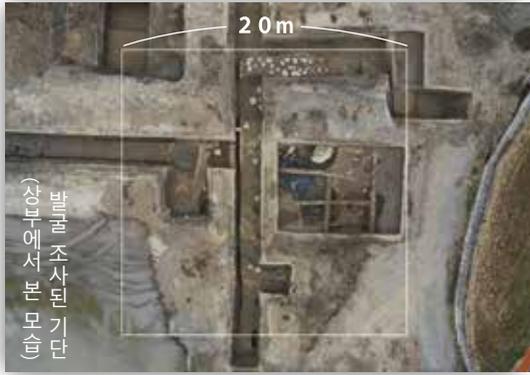
이게 발견된 기와...라고, 우와! 우리랑 똑같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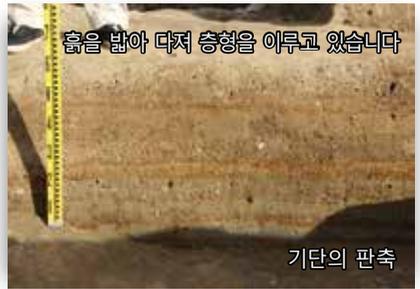
그렇군요

# 거대한 탑의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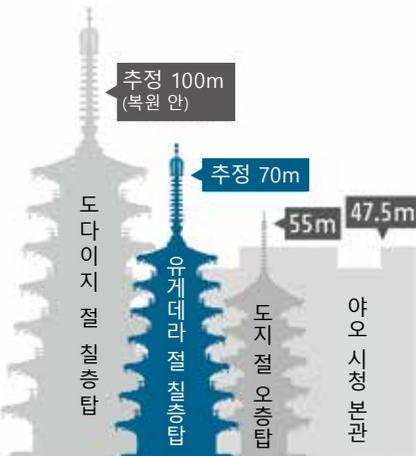
'기단'이란 탑을 짓기 위한 토대입니다. 기단 표면을 장식했던 돌과 탑의 기둥을 떠받친 주춧돌은 후세의 개발이나 파괴로 인해 남아 있지 않았으나 발굴 조사에서 한 변에 약 20m의 기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한 규모의 기단은 헤이조쿄 궁에 있었던 겐코지 절이나 사이다이 절의 오층탑 (약 18m 전후) 보다 크고 도다이 절의 칠층탑 (약 24m) 에는 못 미치지만 다이안지 절 (약 21m) 에 필적하는 것으로 보아 유게데라 절의 탑도 칠층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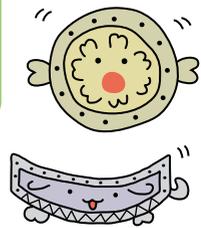


높이는 현존하는 목조 건물로는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도지 절의 오층탑(약 55m)을 넘었을지도 몰라!



굉장히 높은 탑... 아~ 생각났다~! 확실히 우리들 탑이죠!

굉장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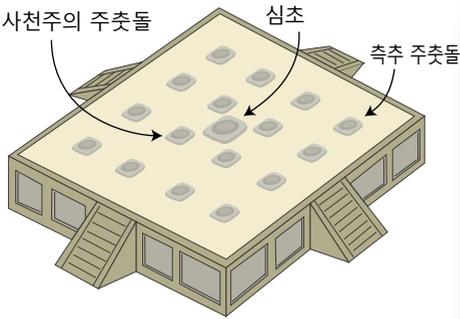
야오 시청보다 높았다고? 유게데라 절의 탑

# 탑의 주춧돌

탑의 중심 기둥을 받친 심초 돌은 없고, 기둥의 위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름 약 60cm의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원기둥 자리를 가진 초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기둥 자리를 가진 주춧돌



탑기단 이미지 일러스트



성이 있는 거대한 바위  
사천주를 받쳤을 가능

기와 이외에 자신에게 지내는 고사를 위해 묻은 고대 동전 와도카이친과 만넨쓰호, 진구카이호 등 화폐, 사하리(청동에 주석과 납을 섞어 만든 합금) 다완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기와나 돌 등에 불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탑이 불타 버린 것 같습니다.

# 유게데라 절의 전체상

금당이나 강당 등 사찰에 있는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게데라 절과 가까운 시기에 세워진 다이안지 절이나 도다이지 절 등은 동서로 두 개의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 역시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구나~  
탑이 불타고 있었어...  
우리도 그때 떨어지고  
말았구나...

그렇구나~ 탑의 마지막은...  
이건 몰랐네  
그럼, 나는 일이 있으니까  
슬슬 갈게.



매장 문화재 조사 센터에 가면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짧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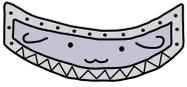


# (9) 헤어질 때...

770년

(신고케이운 4년) 8월

도쿄는 쇼토쿠 천황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지요?



우도 씨!

아~ 미안해 이것만 대답하고 갈게 천황의 무덤 옆에 있으려고 했는데, 멀리 떨어진 시모쓰케 야쿠시지 절의 장관\*으로 파견되었지.

\* 조시모쓰케 야쿠시지 절 별당직

직업은 승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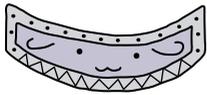
## 시모쓰케에서의 도쿄

시모쓰케 야쿠시지 절 (도치기현 시모쓰케시) 은 도다이 절, 간제온지 절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와 함께 승려가 되는 데 필요한 의식을 치르는 계단이 있어 동국 불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절입니다. 도쿄가 지니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쿄는 천황의 뒤를 따르듯이 2년 후인 772년에 사망했습니다. 절 근처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또한 '쇼토쿠 천황을 모셨던 두 궁녀도 함께 와서 천황의 공양을 위해 힘썼다' 든가 '천황도 이곳에서 함께 죽었다' 는 등 도쿄에 얽힌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 정치의 세계를 떠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힘썼고 사람들의 흠모를 받았겠조.

도쿄는 천황의 자리를 노렸다고 하는 나쁜 이미지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천황을 뒷받침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가지정 사적터 시모쓰케 야쿠시지 절터



도쿄츠키 총(류코지 절 경내)

분명 그럴거야! 탐이 완성되었을 때의 두 사람은 정말 기뻐했었지!

그건 그렇고 유도 씨는 도쿄 선사와 닮은 것 같애... '우도 기요' '도쿄' 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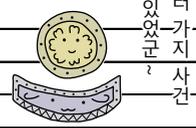
아하하하, 자주 듣는 애긴데, 그냥 도쿄 광이야. 너무 좋아해서 중이 됐을 뿐이고. 야오 출신이니까 어쩌면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이걸로 유계데라 절의 탐 이야기는 끝! 도쿄와 쇼토쿠 천황, 두 사람이 함께 한 발자취 10년은 야오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안녕?

천황	서기	연호	월	주요 사건들
겐쇼	718	요로 2	-	아베 공주 (후에 고켄, 쇼토쿠 천황) 가 탄생
쇼무	742	덴표 14	12	유게데라 절의 승려 교세이가 득도 (출가) 를 신청 : 유게데라 절 조건
	747	덴표 19	6	'사미 도쿄' 문서 : 도쿄 조건
고켄	749	덴표쇼호 1	7	아베 공주 (고켄 천황) 가 즉위
	753	덴표쇼호 5	4	'법사 도쿄' 문서
준닌	758	덴표호지 2	8	고켄 천황 양위, 오이왕 (준닌 천황) 이 즉위
	760	덴표호지 4	3	만넨쓰호 화폐 주조
	761	덴표호지 5	10	오미국 호라노미야 궁 (시가현 오쓰시) 에 고켄 상황이 행사, 도쿄가 간병 선사가 됨...(1)
	762	덴표호지 6	6	고켄 천황이 출가
	763	덴표호지 7	9	도쿄가 소송대가 됨
	764	덴표호지 8	9	사이다이시 절 (나라현 나라시) 건립을 발원 / 후지와라노 나카마로 난 이후 도쿄가 대신 선사가 됨
	10		10	준닌 천황을 폐위시키고 고켄 상황 (쇼토쿠 천황) 이 재즉위...(2)
쇼토쿠	765	덴표신고 1	9	친구카이호 화폐를 주조
			10~10	첫번째 행사 : 5 일 동안...(3) 10 월 29 일 기이국에서 행사 도중에 유계 행궁으로 행차 10 월 30 일 유게데라 절에 예불 10 월 1 일 유게데라 절에 식봉 200 호, 지시키키 절에 50 호를 헌상 10 월 2 일 도쿄를 태정대신 선사로 임명하고 문무백관에게 도쿄를 배하하게 함 / 유게데라 절에 예불 10 월 3 일 오가타, 와카에군의 공물과 조세를 면제하고 헤이조쿄 궁으로 귀환
			10	헤이조쿄 궁에서 유수 백관에게 도쿄를 배하하게 함
	766	덴표신고 2	10	도쿄가 법왕이 됨...(4)
	769	신고케이운 3	1	헤이조쿄 서궁에서 대신 이하에 도쿄를 배하하게 함
5~10			우사히치만구 신사 신탁 사건...(5)	
770	신고케이운 4	10~11	두 번째 행사 : 23 일 동안...(6) 10 월 17 일 유게노미야 궁에 행사 : 유게노미야 궁 초건 10 월 21 일 류게지 절을 유람하고 나니와궁의 비단, 소금을 헌상 10 월 30 일 유게노미야 궁을 니시노쿄 궁으로 정하고 가와치국을 가와치국으로 지정 11 월 9 일 헤이조쿄 궁으로 귀환	
		2~4	세 번째 행사 : 39 일 동안...(7)(8) 2 월 27 일 유게노미야 궁에 행사 3 월 3 일 하카타강에서 연회가 거행됨 3 월 28 일 6 대 가문인 후지이, 후네, 쓰, 후미, 다케후, 구라 가문의 남녀 230 여 명이 우타가키 행사를 벌임 4 월 1 일 조유게노미야 궁의 대궁사 신직 차관을 임명 4 월 5 일 유게데라 절의 탑 건설에 따른 제사, 잡공 등 95 명에게 벼슬을 하사 4 월 6 일 헤이조쿄 궁으로 귀환	
		8	4 일 쇼토쿠 천황이 헤이조쿄 서궁에서 붕어 17 일에 고야산릉 (나라현 나라시) 에 안장 21 일 도쿄가 조시모쓰케 야쿠시지 절 별당 (도치기현 시모쓰케시) 이 됨 26 일 가와치국을 가와치국으로 되돌림	
		10	호키 1 고닌 천황이 즉위	
772	호키 3	4	도쿄, 시모쓰케에서 서거...(9)	



순식간의 10년 동안이었습



## 유게 데라 절의 탑 이야기

~도쿄와 쇼토쿠 천황의 발자취 10년 동안~

발행연월일 2021년 12월  
 편집·발행 야오시 관광·문화재과  
 야오시 혼마치 1-1-1  
 디자인 협력 NPO 법인 역사체험 서포트센터 랫코

'2021년도 문화청 문화자원 활용 사업비 보조금 사업'